

# 美 민주, 8년만에 하원 탈환-공화, 상원 수성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공화당은 하원은 뺐지만 상원을 수성하며 체면을 지켰다. 특히 접전 지역에서 자리를 지키며 선전했다는 평가다.

CNN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에 입성하면서 앞으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할 힘을 확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배지넘버(탈환에 필요한 최소 의석수)'인 23석을 넘어 최대 35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워싱턴DC,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중간선거 결과**  
**민주, 하원 다수당 입성**  
**향후 2년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할 힘 확보**  
**트럼프, 결과에 만족중**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선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연단에 서서

"내일은 미국에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이라며 하원에서의 승리를 자축했다.  
 반면 상원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수성에 성공했다.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4시 기준)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위치를 지켰다.  
 AP통신 등은 상원 선거 격전지 중 하나였던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후보가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조 도널리 후보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92% 개표결과 브라운은 53.0%를 득표해, 42.9%를 득

표한 도널리를 두자릿 수로 따돌렸다.  
 노스다코타주의 경우 현역 하이다 하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후보에게 패배하며 공화당에 승리를 안겼다.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등 경합 지역으로 꼽히던 다른 지역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4시 기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둘다 공화당이 약간 더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

당의 하원 승리, 공화당의 상원 승리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에게 좋은 밤"이라며 "대통령은 지난주 상원 선거 후보들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 유세를 펼쳤으며 그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호평했다. /뉴시스

## 선거연령 낮추고 선거운동 늘리고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세 건의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정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했다.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반장, 주민자치위 위원,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모임,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이밖에 ▲구·시·군 단위의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 ▲현역의원의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지급 특혜 등 정치기득권 폐지를 통해 소수정당과 원외인사, 정치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상정·이정미·정동영·천정배·김종훈·추혜선·윤소하·김종대·김광수·이철희·제윤경 등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 여야, 예산심사 초반부터 신경전

### "동료의원에 빈정" vs "질의에 정치적 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3일째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종합질의에서 (여당 측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아저' (빈정거린다는 뜻의 일본어)를 쓴다거나 문 제제거하는 모습들에 거의 자제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하 시면서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정부 여당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말씀에 대해 아저를 놓은 건 기억이 없다. 다만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인격 모독성이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주의를 주시라고 요청 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내용을 문제 삼았더라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통계를 잘못된 걸 이용해 반복해 질의한다고 문제 삼았을 것이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맞섰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를 판단하는 건 동료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객관적 수치에 따른 질의가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 과연 지금 말씀처럼 품격과 품위가 있었는가"라며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그게 질의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급기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다). 참 품격 있으시다"고 비꼬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통계 수치를 인용해 질의할 때 어떤 의원이 처음에 잘못된 통계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잘못된 통계라고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이후에도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의를 반복한다면 이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0여 분간 이어진 여야 공방에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그는 "상호간에는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어도 직접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발언자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상황을 중재한 뒤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예결위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에 나선다. /뉴시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군공항에서 환승 인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전북도의회, 올 마지막 회기 돌입

### 오늘 정례회 개최... 행감·예산심사 등 내달 13일까지 의정활동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58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식을 갖고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28건(조례안 24, 승인 동의안 4)의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올 한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 집행상

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편성·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자료를 확보하여 검토·분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갖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비록 제한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견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358회 정례회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2019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된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창조적인 건설산업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단 및 제5대 대표회원

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박병도	윤영위원	강신길	윤영위원	신상문	대표회원	강동범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권강준
직권회장 윤재호	윤리위원	김송희	윤영위원	고상범	윤영위원	양신기	대표회원	강성희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윤명숙	대표회원	정준모
부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김승수	윤영위원	기호성	윤영위원	오영준	대표회원	강지원	대표회원	김용태	대표회원	윤일남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김양희	윤영위원	김성민	윤영위원	윤신학	대표회원	국중훈	대표회원	김향신	대표회원	윤진호	대표회원	조희곤
부회장 전욱	윤리위원	박영식	윤영위원	김영량	윤영위원	이용규	대표회원	김광현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이기철	대표회원	진영철
감사 이윤범	윤리위원	송재철	윤영위원	김종원	윤영위원	이재신	대표회원	김대수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진동신
인보회원 임영환	윤리위원	송화중	윤영위원	김준원	윤영위원	이진일	대표회원	김대열	대표회원	김영주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최경호
인보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이공희	윤영위원	나준균	윤영위원	이준수	대표회원	김문숙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이장규	대표회원	최종환
인보회원 이동규	윤리위원	이동근	윤영위원	라규환	윤영위원	조금형	대표회원	김민정	대표회원	박영민	대표회원	이정우	대표회원	한지훈
인보회원 김경권	윤리위원	이승현	윤영위원	문길현	윤영위원	조금형	대표회원	김민정	대표회원	박혜경	대표회원	이현국	대표회원	한웅진
	윤리위원	이정기	윤영위원	박종완	윤영위원	채이석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복남근	대표회원	이영우	대표회원	한지훈
	윤리위원	조병두	윤영위원	배문식	윤영위원	최도성	대표회원	김성욱	대표회원	송영석	대표회원	임재준	대표회원	황재준
	윤리위원	최산성	윤영위원	배진석	윤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안소윤	대표회원	장기현	대표회원	황태봉
	윤리위원	최현호	윤영위원	배진석	윤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안장환	대표회원	장용준	대표회원	황호영

어른성명가나다순